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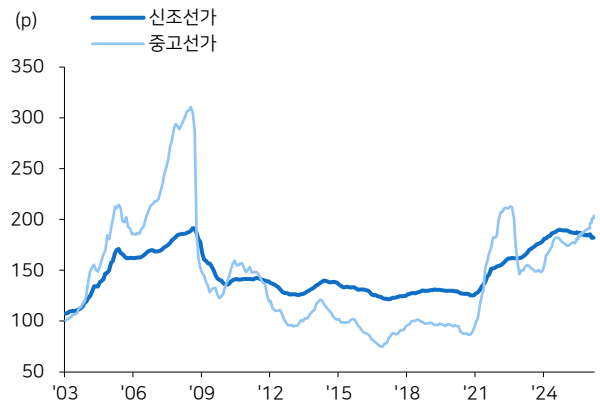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8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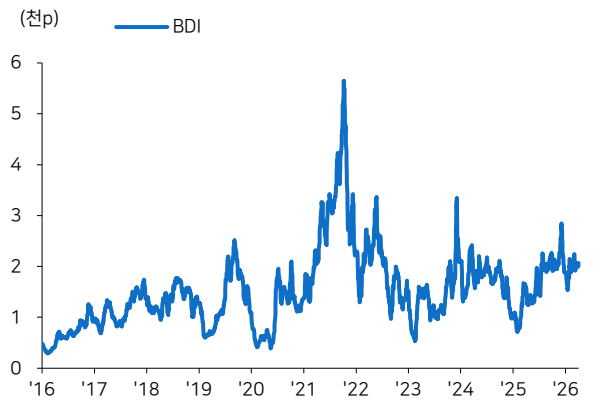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2p (+0.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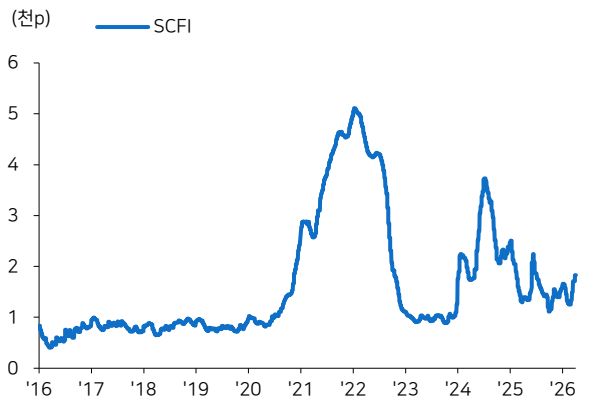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3.0달러 (+3.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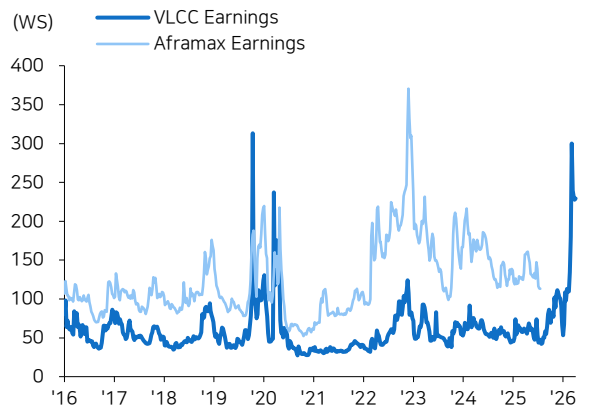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66.0p (+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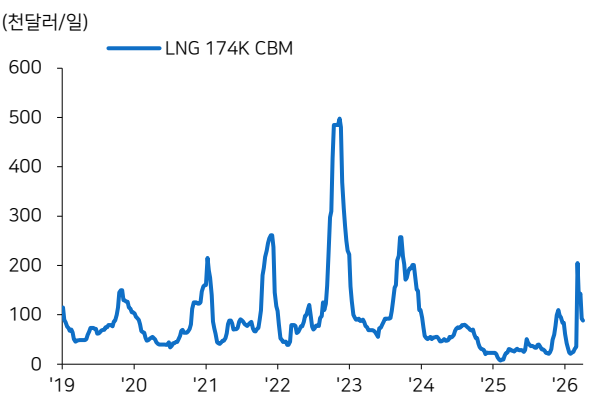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55.0p (+28.2p WoW)



VLCC Spot Rate 229.1WS (+1.6p WoW)



LNG Spot 운임 88.5천달러 (-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코이카, 조선업 역량 페루 전수...중남미 첫 기업협력 원조 사례 (연합뉴스) https://zrr.kr/S5ntle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코이카)이 HD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페루 리마에서 조선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향후 3년 동안 KOICA와 HD현대중공업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여 총 30억 원을 투입하며, 현지 인력 180명 양성 및 조선업 관련 기업 18곳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 전해짐. 기술교육 교재 개발과 생산 및 품질 관리 분야 전수를 통해 양국 간 산업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남미 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한 인적 · 기술적 초석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짐.

정부, 미국 LNG 사업 수출보증...삼성중공업에 1.5 조 지원 검토 (매일경제) https://zrr.kr/3QAjWm

정부가 삼성중공업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플랜트 수주 사업에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검토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와 LNG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됨. 이번 지원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이며, 단순 EPC 수주를 넘어 지분 투자와 운영이 결합된 통합형 인프라 수출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국내 조선사들의 시추선 및 LNG 운반선 추가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다만 미국 디벨로퍼 중심의 수익 배분 구조와 현지 해운사 부재에 따른 선박 인도 금융의 어려움, 가스 매장량 리스크 등 사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의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짐.

한화, 중남미 최대 방산전시회 첫 참가..."칠레 시장 공략 본격화" (아시아경제) https://zrr.kr/XlQVqm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7일부터 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칠레국제항공우주박람회(FIDAE 2026)'에 참가한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KSS-III Batch-II와 남미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2,000톤급 OCEAN 2000 잠수함,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의 4,000톤 · 5,600톤급 호위함을 전시한다고 알려짐. 이번 전시를 통해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강조하고, 칠레 해군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해양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반선 프로젝트' 랑데부 완료..."협업형 건조모델 성공" (파이낸셜포스트) https://zrr.kr/WYBoN6

HD현대중공업이 서로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의 선수와 선미 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반선 건조 프로젝트'를 국내 최초로 시도하여 성공했다고 보도됨.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미부와 HSG성동조선이 만든 선수부를 울산으로 옮겨 결합하는 '랑데부' 작업을 완료했으며, 157,000DWT급 원유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업 모델은 생산 물량 분산과 유연한 건조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고 전해짐. 해당 방식을 바탕으로 울산 조선소에 집중된 생산 부하를 협력업체로 나누어 효율성을 높인다고 알려짐.

Key details revealed as Argentina LNG progresses towards end-of-year FID (Upstream) https://zrr.kr/MyQN5g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인 YPF가 2026년 하반기 FID를 목표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출 프로젝트인 Argentina LN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YPF와 Eni, XRG는 최근 공동 개발 협약(JDA)을 체결하고 FEED 단계에 진입했으며, Vaca Muerta 셰일 가스를 활용해 연간 600만 톤급 FLNG 2척을 신조하여 2030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oracio Marin YPF CEO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스와 액체 연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로 글로벌 수익성 3위 안에 드는 유망한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며, 연내 2척의 신조 FLNG 관련 계약을 마무리하고 향후 3호기 추가 도입을 통해 연간 1,800만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라 알려짐.

US LNG developer seals offtake contracts as final investment decision looms (Upstream) https://zrr.kr/RObnT

Commonwealth LNG의 운영사인 Caturus가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의 FID를 앞두고 EQT, Glencore, Mercuria, Petronas, Saudi Aramco 등 주요 기업들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기존 파트너였던 JERA와의 계약은 파기되었으며, Woodside Energy 또한 2025년에 계약을 취소했으나, Caturus는 상업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주단과 금융 절차를 시작하고 125억 달러 규모의 1단계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해짐. EPC 계약자인 Technip Energies는 Baker Hughes, Honeywell 등 벤더들에게 구매 주문을 승인받았으며, 2030년부터 연간 35억 달러의 수출 수익 창출을 목표로 부지 조성 및 해상 하역 시설 등 하도급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